

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i>					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10. 26.(수)		
담당 부서 <총괄>	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	책임자	과장	김건훈	(044-202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윤동빈	(044-202-2969)

보건복지부 제2차관,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(FIND)과 국제 공중보건 기여 방안 논의

- 중·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한국진단기기 역량 활용 방안 제안 -

-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2년 10월 26일(수) 오전 11시 30분 2022 세계 바이오 서밋('22.10.25~26, 그랜드워커히 호텔) 행사에서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(FIND*) 빌 로드리게즈(Bill Rodriguez) 대표와 만나 한국의 진단기기 산업 현황과 역량, 국제공중보건 기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FIND: 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

- 이번 논의는 「2022 세계 바이오 서밋」 행사의 취지에 따라 바이오, 헬스케어 분야 세계 정상급 리더들을 초청*하여 국제 공중보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,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.

* 빌 로드리게즈(Bill Rodriguez) 대표는 '글로벌 진단기기 개발현황 및 전망' 분과(세션)에 주제발표자로 참석(10.26, 15:00~16:00)

-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은 말라리아, 시(C)형 간염 등 빈곤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의 진단 여건 개선 및 진단기기 개발·인증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로,

-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(팬데믹)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(WHO) 주도의 국제협력 플랫폼의 진단기기 분야 총괄 기구로 참여하여 해당 분야의 전략 수립과 실무협의 등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- 특히, 중·저소득 국가에 진단기기를 공급하고, 생산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 글로벌 보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세계 여러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.

- 감염병 발생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은 대규모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,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진단기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었다.

- 한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(팬데믹) 상황에서 민·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기를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능력을 확보*하였으며, 그 과정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산업 또한 크게 성장**하였다.

* 국내 코로나19 하루 최대 검사역량은 85만 건으로 세계 최고수준

** 생산액 '20년 3조3,549억 원에서 '21년 4조3,501억 원으로 약 29.7% 증가
수출액 '20년 4조2,000억 원에서 '21년 5조3,209억 원으로 약 26.4% 증가

- 이번 논의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진단기기 역량을 활용하여 국제 공중보건 위기 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한국 정부와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간 협력방안이 제안되었다.

- 빌 로드리게즈 대표는 중·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극복 등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의 미래 계획*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진단기기 기업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고,

* 중·저소득 국가에서의 감염병 진단 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①혁신, ②동반관계(파트너십) 및 네트워크 연결, ③기술 및 방법(노하우) 지원, ④시장 도입 및 규제 지원, ⑤정부 및 구매자와의 관계 등을 강화 등이 필요

-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의 우수한 진단기기와 검사역량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하며, 이를 위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- 또한, 다양한 감염병 진단기기 개발을 위해 ①‘(가칭)한국-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협력 공개토론회(포럼)’의 정례적 개최, ②한국에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과 협력할 수 있는 임상시험기관 지정, ③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검체은행(Specimen Bank)과 한국 기업을 연계한 ‘(가칭)한국-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검체 네트워크’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.



-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“한국 정부는 진단기기 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성능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(팬데믹)에 대비하고, 국제적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”라며,
- “그 과정에서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중·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진단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접근보장 등 국제 공중보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(FIND) 개요

붙임

혁신적 진단기기 재단(FIND) 개요

FIND: 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

출범배경

- 말라리아, 시(C)형간염 등 빈곤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의 진단 여건 개선 및 진단기기의 개발·인증 지원을 위해 200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범(세계보건기구 총회 계기)
- 당초 생산·운송 협력체로서 출범했으나, 코로나19 이후 세계보건기구 주도 국제협력 플랫폼의 진단기기분야 총괄기구로 참여*, 역할 증대
- * FIND는 WHO ACT-A(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, 다자협력체), WHO CC(협력센터)의 진단기기분야 총괄기구로 참여, 해당분야 전략수립 및 실무협의 등 주도

조직

- (조직) 본부 제네바 소재, 직원 약 160여 명, 지역허브사무소 4개국(인도, 케냐, 남아프리카, 베트남)
- (협업국제기구) 세계보건기구(WHO),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(CDC), 미국 국제개발처(USAID), 국제의약품구매기구(UNITAID), 영국국제개발부(DFID), 스위스개발협력청(SDC), 세계백신면역연합(GAVI), 독일재건은행(KfW), 국제기금(the Global Fund), 감염병혁신연합(CEPI) 등

주요활동 및 특징

- 각국 정부·재단·타 국제단체 등으로부터 확보한 기금을 활용, 진단기기 개발·보급·진단역량 향상에 관한 프로젝트 등 지원
- * FIND 대상 주요 공여자: WHO, 감염병혁신연합(CEPI),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, 글로벌펀드, 미국 국제개발처, 영국 국제개발처(2,300만 파운드(약 370억원), 독일 교육연구부(750만유로(약 104억원)·경제협력개발부, 네덜란드 외교부 등

- 기업의 WHO 긴급사용승인(EUL) 목적으로 자체임상시험 실시 및 협력 기업에 한해 진단제품 성능을 자체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,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
 - 이러한 평가결과를 각국 보건부나 WHO, CDC 등에서 참조 후 구매할 만큼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은 평가 기구로 인정
- 중저소득국가(LMICs)의 빈곤 관련 질병(결핵, 말라리아, HIV/AIDS, C형 간염, 열대성 질병을 포함) 진단에 대한 다양한 지원(샘플링 방법, 진단 정책 개발 연구, 조기진단 신모델 개발 등)
 - 중저소득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진단 및 플랫폼 솔루션 발굴 및 평가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